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베드로후서 1:1~9.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준비시켜 주는 하나님다운 속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온 생애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20~25분)**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 학교와 가족,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생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베드로는 어떤 표현을 4절에서 사용했는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베드로는] 영적인 것과 교감을 갖는 것,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것에서 일어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61년 10월, 90쪽)

학생들에게 맥케이 회장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설명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우리가 베드로의 권고를 따를 수 있는 방법의 예를 들어보게 한다.

열매를 의미하는 여덟 개의 원이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그린다. 나무를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름 붙인다. 학생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5~8절을** 읽게 한다. 그들에게 이 구절에 있는 여덟 가지 속성에 따라 열매에 이름을 붙여보게 하고 각 속성에 대해 간략하게 토론을 한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다음 말씀을 나눈다.

**"베드로가 설명한 덕성은 신성한 성품, 곧 구주의 특성의 일부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그분같이 되기 위해 본받아야 하는 덕성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6년 10월, 59쪽;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59쪽)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베드로후서 1장 5~8절에** 있는 덕 또는 속성들은 누구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는가?
-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기 위해 가르침을 받아왔는가? (제3니파이 27:27 참조)
- 이러한 자질을 따르려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 우리가 이러한 덕을 모방하려 애쓴다면, 우리 일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에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증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다시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구주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덜 아는 것보다도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의 자질을 우리가 모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은혜의 정의를 읽게 한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변화시키는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9~10절을** 읽고 하나님다운 속성이 부족한 사람(9절)과 그 속성을 본받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10절)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주목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이 모든 속성을

손쉽게 또는 빠른 시간 내에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완전히 관한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권고를 나눈다.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는 구주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적용해 왔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다. 구주께서는 필멸의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나, 그 기초가 놓여져야 하는 곳은 바로 이곳 필멸의 세상이다. 그런 연후에 우리는 이 생애에서 뿐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도 은혜에 은혜를 더해 가며, 충실한 모든 영혼이 결국에는 그러한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가능해 진다."**(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4:72)

**베드로후서 1:20~21.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전을 영으로 연구해야 한다.(10~15분)**

반원들에게 어떤 학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기록된 책 한권을 보여준다. 한 학생에게 그것을 읽어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경전을 보여주고 그것들이 과거에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는지 질문한다. 일부 학생들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또는 영어라고 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온 후에 **니파이후서 32장 2~3절을** 읽고 질문한다.

• "천사의 방언"이란 무엇인가?

• 어떤 권능으로 천사는 말하는가?

•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1장 20~21절을** 읽고 경전이 여러 언어에서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전은 본래 성신의 권능에 의해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의 말씀을 읽게 한다.

**"만일 선지자들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했다면, 성신은 그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영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Conference Report, 1966년 10월, 113쪽; 또한 고린도전서 2:10~11, 14; 니파이후서 25:4 참조)

우리가 경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토론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경전을 연구할 때 영을 불러오는 방법에 관해 배웠던 것을 나누도록 부탁한다.